

<미국사무소 이슈페이퍼>

미국 창작자들의 파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07년 11월

KOCCA 미국사무소

1. WGA와 브로드웨이 무대종사자의 파업

□ 개요

- 지금 할리우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은 바로 미국 작가 조합(WGA · Writers Guild of America)의 파업이다. 지 11월 5일 영화-TV 제작자연맹(AMPTP ·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과의 임금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작가 협회 소속 회원 12,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 파업의 발단

- 12,000명에 달하는 미국 작가 조합(WGA)와 영화 TV 제작자연맹(AMPTP) 사이의 기존 계약은 10월31자로 시한이 끝났다.
- AMPTP와의 계약 연장에 실패한 뒤 11월4일 다시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서 12시간 동안 의견 조율에 힘썼지만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 파업 진행 상황

- 20만여 명의 미국작가협회 회원들은 현재 방송국은 물론 영화 스튜디오와 포스트 프로덕션 하우스, 로케이션 촬영지 등에서 프로덕션 진행을 저지하고 있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시위에는 칼튼 쿠스(로스트), 그렉 벨렌티(더티 섹시 머니) 등 유명 작가 겸 프로듀서는 물론, 코미디언, 배우, 토크쇼 호스트들도 동참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 AP통신은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LA 지역 경제에 대략 연간 300억 달러, 매일 8,000만달러 규모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분석함. 미 작가협회는 지난 1988년에도 22주간이나 파업을 벌였는데, 이때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는 5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일 평균 3백만 달러로 집계된바 있다.

-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루이지애나 · 펜실베이니아 · 뉴멕시코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LA · 뉴욕 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특히, 재방송 등 대체 편성이 가능한 방송국보다도 세트 작업자 · 미용사 · 운전사 등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또 20세기 폭스, CBS, 파라마운트 등 적어도 2개 제작사는 파업 작가들에 대해 계약 파기 문서를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 영화계에서도 007시리즈와 ‘다빈치코드’ 속편, ‘엑스 파일’ 등 제작을 앞둔 작품 50편 중 75%가 중단의 위기에 처했다. 개봉예정인 영화들도 주요 홍보창구인 TV토크쇼의 재방송 사태로 울상을 짓고 있다.
- TV 시청률이 하락함에 따라 연간 7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TV 광고시장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작가들은 DVD와 인터넷, 모바일, PDA 등에서 더 높은 수익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 TV-영화 제작자연맹(AMPTP) 측은 12일 ‘버라이어티’와 ‘할리우드 리포터’ 등 업계지에 작가조합의 주장을 반대하는 전면광고를 실는 등 양측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 디지털 유통 시대의 창작자 수익분배가 주요 이슈

- DVD 이익과 영화 및 TV 쇼의 인터넷 등 뉴미디어 배급 수익에 대한 배당금 증액에 대한 요구가 주요 이슈인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수면에 가라앉아 있던 수익 배분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다.
- 특히 DVD와 온라인뿐만 아니라 아이팟(i Pod)이나 휴대 전화 등 뉴미디어가 부상함에 따라 산출되는 2차 판권 부분에서 거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작가 협회의 주장이다.

<표 1> 미국 영화 시장 규모 (단위: 백만 US \$)

년도	2006(E)	2007(E)
Box Office	9,448	9,916
Home Video 구입	17,007	17,615
Home Video 대여	8,690	9,200
합계	35,185	36,731

※ 출처: PWC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액면가 20달러짜리 DVD 판매 중 작가협회가 받는 돈은 3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제이 르노는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작가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스타 작가를 제외하곤 평균 임금이 1년에 US\$ 30,000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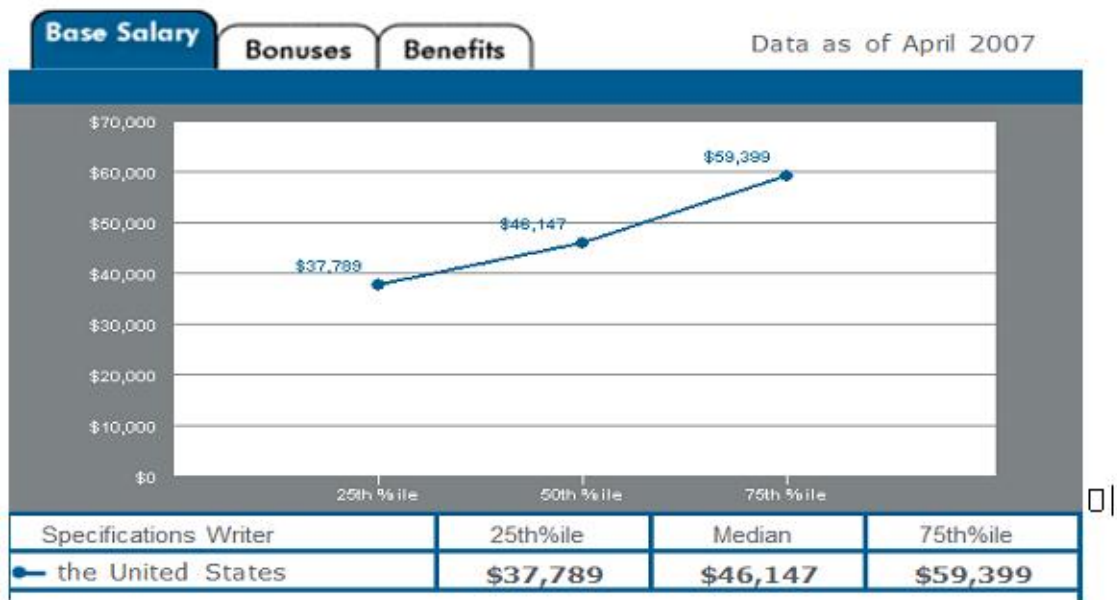
<표 1> 미국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 규모 (단위: 1회, 1 US\$)

구분	회수	평균가격	연간소비규모
디지털 영화 다운로드	2,000,000	개당 16	32,000,000
TV쇼 다운로드	30,000,000	개당 2.5	75,000,000
Online Rental	62,000,000	월정액 16	1,190,000,000
합계	94,000,000	-	1,297,000,000

※ 출처: WGA

□ 미국 작가들의 연봉 수준

<그림 1> 미국 작가들의 기본 연봉 수준(단위: 1 US\$)



※ 출처: www.salary.com

- 일부 인기 작가들의 경우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벌기도 하지만, 약 50퍼센트에 달하는 미국 작가협회 회원들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은 5만 달러(4,50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 제작자협회 측은 작가들의 평균 연봉이 20만 달러로 양호하고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도 미국 전 직종을 통틀어 최고 높은 수준이라며 현 조건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작가협회원 중 선다 라임스(그레이 아나토미)같은 일부 유명한 극작가들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서부 미국작가협회원 중 48%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그 중 일부는 5만 달러 이하의 연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 미국 노동부에 의해 2004년 조사된 미국 작가들의 평균 연봉은 US\$ 44,350으로 중간의 50% 정도가 US\$ 31,720 에서 US\$ 62,930 사이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하위 10%는 US\$2 3,330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상위 10%는 US\$ 91,260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대부분의 회원들에게는 DVD 지분 인상이나 뉴미디어 수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계약상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최소 US\$ 106,000, 네트워크 프라임타임 코미디 각본은 에피소드 당 US\$ 20,956, 드라마는 US\$ 30,823를 최소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 또한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평균 소득은 연간 20만 달러 이상이다. 이것은 LA 카운티의 평균 소득인 52,572 달러보다는 월등한 수치지만,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배우나 감독, 스튜디오 CEO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액수이다.

□ 세부 협상 현황

- 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수익

률에 비해 작가들의 연봉 상승률은 50% 미만에 그쳤다. 특히 이번 파업사태가 내년 6월에 계약이 완료되는 감독과 배우 협회와의 재계약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 사태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 그러나 11월4일 그동안 가장 치열하게 논의했던 몇 가지 쟁점 중 DVD 수익분배 부분을 가까스로 합의했음. 당시 WGA 쪽은 DVD 수익을 기존의 두 배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연금과 건강보험 및 여타 사안에서 타협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짐. 반면 VOD, 온라인 및 다운로드용 콘텐츠 수익과 관련된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들 쟁점만 원활하게 조율한다면 WGA의 파업이 단기간 내 종결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 AMPT 측은 대부분의 영화사와 방송국은 물론 미디어까지 점유하고 있는 6대 대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뉴스 콧, 소니, 타임워너, 바이아콤, 월트 디즈니 컴퍼니 등이다.
- 이들은 DVD 지분 인상안에 대해서는 초기보다 DVD 판매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사가 투자액을 전액 회수한 후에 작가협회에 그 일부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또한 뉴미디어 판매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인터넷과 휴대폰 시장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 작가들의 직업 환경

- 미국의 작가들은 일부는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계약서대로 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건당 돈을 받기 때문에

마감시간에 맞추려면 밤낮, 새벽이나 주말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 많은 프리랜서 작가들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유동성 있는 업무시간을 사용하는 반면에, 대부분은 마감시간에 대한 압박, 창작에의 스트레스,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 장기간 컴퓨터 사용에 따른 요통, 신경성 위장병, 만성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다.

□ 파업의 여파 - 작가협회 파업이 각 방송사 편성에 미치는 영향

○ ABC

- <로스트>: 16회 중 8회 방송 가능.
- <케이브멘>: 13회 중 12회 가능.
- <멘 인 트리스>: 지난 시즌 미방송분 5회와 촬영 끝난 10회, 집필 완료된 4회 분 가능.
- <캐시미어 마피아>: 방송 시작일 1월 초로 연기. 13회 중 7회 가능.
- <더티 섹시 머니>: 13회 중 11회 가능.
- <브라더스 & 시스터스>: 12회 중 11회 가능.
- <일라이 스톤>: 13회 완료. 방송 시작일 미정.

○ CBS

- <투 앤드 어 하프 멘>, <빅뱅이론>: 촬영 전면 중단.
- <CSI: 마이애미>: 24회 중 13회 에피소드 방송 가능.
- <문라이트>: 12회 중 11회 가능.
- <케인>: 경호원을 추가로 2명 고용했으나, 시위 중인 협회원들의 촬영 방해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 13회 에피소드 완료될 예정.

- <제리코>: 7회 완료될 예정.

○ CW

- <에브리바디 헤이츠 크리스>: 22회 전 시즌 방송 예정.
- <가십 걸>: 22회 중 13회 가능.
- <슈퍼내추럴>: 10-12회 방송 가능. 추가 5회 에피소드 거의 완성.
- <스몰빌>: 시즌 전체 중 15회 에피소드 집필 완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클리프행어로 끝나는 15회 에피소드를 시즌 마지막 회로 2월 중 끝낼 예정.
- <아메리카스 넥스트 톱 모델>, <뷰티 앤드 더 깃>, <크라운 드> 등 리얼리티 시리즈는 예정대로 방송될 계획.

○ NBC

- <미디엄>: 22회 중 9회 에피소드 방송 가능.
- <30 록>: 22회 중 9회 가능. 작가 겸직 중인 티나 페이는 시 위 참여 중.
-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츠>: 22회 중 15회 가능.
- <스크럽스>: 18회 중 12회 가능.
- <저니맨>: 13회 완료 예정.
- <오피스>: 출연자들 중 작가로 함께 활동하는 배우들이 많은 이 시리즈의 경우 스티브 카렐을 비롯 주요 캐스트가 파업 지지하며 11월5일부터 촬영에 불참.
- <엘렌 드제너러스 쇼>: 토크쇼 스태프들이 작가들을 지지하며 촬영 불참.

○ FOX

- <24>: 예정됐던 아프리카 로케이션 촬영 취소와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로 촬영이 지연된 상태에서 미국작가협회 파업으로 총 24회 에피소드 중 8 또는 9회 에피소드만 제작 완료 상태.

○ USA

- <인 플레인 사이트>: 새 시리즈로 시즌 촬영 거의 완료.
- <사이크>, <몽크>: 시즌 3/4 촬영 완료.
- <로 앤 오더: 크리미널 인텐트>: 22회 중 10회 가능.
- <번 노트스>: 시즌 2 프로덕션 1월 중 시작 예정.

○ Sci-Fi

- <배틀스타 갤럭시>: 10시간여 에피소드, 2시간 길이 TV 영화.
- <유레카>: 시즌 전체에 영향 예상.

○ FX

- <넵/턱>: 시즌 5 총 22회 에피소드 중 14회 방송 가능.
- <월드>: 마지막 시즌 집필 끝난 상태이나 방송일 불확실.
- <더트>, <더 리처스>: 시즌 전체에 영향 예상.
- <레스큐 미>: 시즌 5 전체에 영향 예상.

○ HBO

- <안투라지>, <빅 러브>: 집필 중.
- <트루 블러드>, <12 마일스 오브 배드 로드>: 프로덕션 시작 단계.
- <더 와이어>: 시즌 촬영 완료.

○ Showtime

- <덱스터>, <위즈>, <캘리포니케이션>, <브라더후드>: 영향 받지 않음.
- <튜더스>: 시즌 2, 3월 말 방송 예정. 시즌 12회 에피소드 촬영 완료.

□ 브로드웨이 무대종사자 파업

-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조합(WGA)에 이어 극장-제작자연맹(LATP)과 노사 협상을 벌여온 2,200명의 브로드웨이 무대 종사자들이 10일 파업을 시작했다.
- 파업에 들어간 이들은 국제극장무대종사자연합(IATSE) 지부의 현지 노조 '로컬 원'의 소속원들로, 무대설치, 조명, 음향, 소품 담당자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 제작자(LATP) 측과 노조(로컬원) 측은 봉급 인상, 스태프 인원에 대한 제작자의 재량권, 근무 시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원들은 성명에서 "무대 담당 직원들의 숫자와 급료는 줄이면서 입장권 값은 내리지 않아 제작자들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 NYT는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9억 3900만 달러 규모의 공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브로드웨이 극장은 2003년 음악가들의 파업으로 나흘간 문을 닫은 적이 있다"며 "당시 뉴욕 관광수입 손실액이 하루 700만 달러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2. 정책적 시사점

□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수익 배분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3주째 접어들고 있는 할리우드 창작 작가들의 파업이 배우나 기타 그룹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으면서 쉽게 종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 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서 Los Angeles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만약, 이번 파업이 12월까지 이어질 경우 LA지역 내 할리우드 프로덕션과 직접 관련된 약 1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일 평균 제작비 2천 1백만 달러의 경제 손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간접 산업까지 감안할 경우 그 경제 손실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한편, LA지역 전체 경제규모인 4,420억 달러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 수준인 309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 이러한 파업의 핵심 사항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대의 합리적인 수익 배분에 관한 이슈로 향후 전 세계 문화산업계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우리나라도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하여 창작자들과 기타 사업자들 사이의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수 측이 이동통신사와 음원 유통사이트 등에 음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지분은 음원 당 25% 정도인데, 25%의 지분 모두가 가수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음악의 실현자인 가수는 지분의 75%를 제한 나머지 25% 중 일정부분을 소속사 측과 나눈 후 비로소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다. 소속사와 계약관계가 5:5인 경우 가수는 자신의 노래로 약 12.5%의 지

분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대중음악 가수들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 등에 고정 출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다시 창작열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 기타 제작 스태프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조합(WGA)에 이어 극장-제작자연맹(LATP)과 노사 협상을 벌여온 2,200명의 브로드웨이 무대 종사자들이 10일 파업을 시작한 것은 문화콘텐츠 제작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수익의 보전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던 제작 전반의 인력들의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문화산업과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한국 영화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도, 조명, 카메라, 기타 스태프들이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생활하는 한국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개선에도 이제 산업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